

작가, 덧없고도 헛헛한 세계의 그림자로 스쳐가는 자



2017년 포럼 전통과 미래에서 주관하는 군포문학상 수상자는 오랫동안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기울여온 김영래 작가이다. 1997년 시인으로 등단한 후 올곧게 신화와 에코토피아에 대한 철학을 진지하게 풀어냈던 작가는 최근 멸종 3부작 중 두 번째 장편소설『신의 괴물』을 출간하고 이제 세 번째 작품으로 ‘소년의 눈으로 바라 본 한 부족의 멸종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김영래 작가를 만나 군포문학상 수상소감과 전업작가로서의 삶과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김영래 작가님, 군포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포럼 ‘전통과 미래’에서 주관하는 ‘군포문학상’은 우수한 문학작품으로 한국문학과 지역사회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작가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군포문학상을 수상한 소감이 어떠신지요?

하나의 예술작품, 또는 한 사람의 예술가가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 발린 칭송 뒤에 가시를 잔뜩 달고 있거나, 한편으론 시샘과 폄하가 횡행하는 경우가 많지요. 보들레르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말로 자신의 시 세계에 휘장을 치곤 했습니다. 그 또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요약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이유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어진 배려나 박수에 많은 애정이 깃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의 우려들을 불식시키기에 족할 만큼 지인들의 우정이 컸던 것이지요. 일찍 등지고 떠난 뒤 연고가 없어진 저 먼 남쪽 땅과는 달리, 제2의 고향처럼 발붙이고 살아온 군포에서의 기쁜 일이었기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 1997년 시로 등단하신 이후, 소설과 생태에세이 등 특정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글을 발표하셨는데요. 글의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매이지 않은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까치나 길고양이 같은 자유 말이에요.

몇 해 전만 해도 저는 꽤 많은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떠나게 되면 거의 하루 10시간 정도는 걸어 다녔지요. 산길 들길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온종일 길바닥에 나앉아 '노숙의 노래'를 불렀던 셈이지요.

그러나 요즘은 어찌된 셈인지 여행이 싫어요. 그저 소풍, 나들이면 족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엔 이런저런 계획이나 준비물 등이 필요한데, 소풍엔 즉흥성이면 충분해요. 마음의 자력磁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읽을 수 있는 깨어난 직관, 뭐 그런 거죠.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동하면 문득 자리를 털고 일어나죠. 길은 어디나 있으니, 빛이 있거나 저물었거나에 따라 방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수리산을 넘어 산본 9단지 쪽이나, 너구리산 임도를 지나 반월저수지 가는 길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병목안이다 보니, 공원을 한 바퀴 돌아 중앙시장을 거쳐 안양역 안양천 주변을 떠도는 일은 언제 걸어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쓰고 관찰하고 곱씹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쌓이면 알토란같은 종자돈이 적립되기도 하지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아닌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에요. 몸 마음 정신의 삼위일체로 오직 혼자서 움직이는 것. 그러면 내 밖의 모든 것이 조용하며 내 안으로 흘러든답니다.

최근 들어 작업 환경이 월등하게 개선되었는데,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도 엄동설한에도 언제 어디서나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모호하게 비껴가는 것들을 움켜잡을 수 있다는 것. 또 어찌 보면 도서관 하나가 송두리째 내 곁에 숨죽인 채 머물러 있다는 것. 늘 야외에서 걸어 다니면서 쓰고 생각하는 저에게겐 최상의 필기도구이자 비서관이 생긴 셈이에요.

▶환경과 생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생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애당초 저는 대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통합이 이루어져 그 조화로운 힘이 발현될 때 '대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부득이 자연으로부터 괴리될 수밖에 없는 비자연적인 인간 존재를 가정하는 듯하고, '신성함'이라는 말은 땅의 것들, 생로병사를 겪으며 살아야 하는 못산 것들 위에 군림하는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태라는 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지요. 생태라는 렌즈의 한쪽 편에서 눈을 들이대고

지구를, 나아가 우주를 들여다보려는 인간 중심적인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파스칼의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 심지어 신학까지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은 참으로 자연을 영화롭게 한다."

물론 이 말에는 신의 창조물로서의 자연이라는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17세기의 사고이지요. 다윈 시대에 이르면 사고의 관점은 달라집니다. 만약 인간이 신성한 존재라면, 그것은 인간이 대자연의 신비와 장엄함으로부터 물려받거나 공유하고 있는 신성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종의 기원』의 마지막 문장만큼 적절하고도 감동적으로 표현된 것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 문장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원래 극소수 또는 하나의 형상에 몇 가지 능력과 함께 숨결이 불어 넣어졌고, 그 뒤 이 행성이 정해진 중력법칙에 따라 계속 도는 동안에 처음에 그토록 단순했던 것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이로운 무수한 형상들이 진화해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는 이런 생명관에는 장엄함이 있다.”

어때요? 겸허함과 장엄함이 동시에 느껴지지 않나요?

▶문학관이나 특별한 집필공간을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글 쓰는 것과 집에서 글 쓰는 차이점은 어떤가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집필공간이 있다면 어느 곳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신지요.

창작실의 원년은 토지문화관이 작가들에게 공고를 낸 2000년부터라고 기억합니다. 그 무렵 소설로 등단했던 저는 가히 창작실의 총아라고 할 만큼 혜택을 많이 입었습니다. 정말이지 은혜로운 일이지요.

젊었을 적 이불 보따리에 책 보따리를 걸머지고 섬에서 절간으로, 때론 산골 오지의 폐가를 찾아 전전했던 일을 생각하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호사이지요. 집에서 몇 년씩 질질 끌던 일들도 창작실에서



인터뷰 | 1.군포문학상 수상자 김영래 작가



2.3개월 집중하면 끝장은 못 보더라도(아쉽게도 주어지는 시간이 짧으니깐요) 전체를 조망하게 됩니다. 이미 장악된 작품은 손아귀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가지 않지요.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원주 토지문화관, 인제의 만해마을, 담양의 글을 낳는 집, 증평의 21세기 문학관 어디 한 곳 그 나름의 매력을 지니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그도 아니면 책이나 읽으며 소일을 하든 단 한순간도 버릴 것 없는 하루하루를 향유하게 되지요.

저의 경우 토지에서는 연작시집 『사순절』의 거의 대부분을 썼고 마지막 퇴고까지 끝냈습니다. 또한 『오아후오오』역시 토지가 없었으면 완성하기 힘들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은 없어진 만해마을 창작실은 내설악과 매봉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이 있어 『신의 괴물』의 세부 장치들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칠혹 같은 밤과 원시림, 폭설, 사람보다 멧돼지가 많은 심산유곡이 저의 정신세계를 실락지게 길러주었지요.

아직 출간은 되지 않았지만, 멸종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은 <21세기 문학관>과 증평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나에게 안겨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단하신 지 20년이 넘었어요. 사실, 전업작가로서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로서의 삶,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혹은 잠시 잠깐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셨을 법한데요. 이 땅에서 전업작가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글을 써서 먹고 살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보다 절박한 문제는 글을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게 더 중요했으니 다른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물음들이 제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얼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한데 이 세상의 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지상에 이토록

많은 책들이 존재하니 과연 더 무슨 책이 필요한가? 과연 더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써어졌는가?

등단 20년이라지만 등단하기 전 17년의 세월은 그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작가로서의 20년과, 그 이전, 무직자로서의 17년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이지요.

어때요?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물론 저보다 나은 경우도,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더도 덜도 아닌 전업작가의 모습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최근작 『신의 괴물』은 멸종 3부작 중 두 번째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멸종 이야기를 쓰시게 된 창작 동기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멸종 3부작은 어떤 작품이 될까요?

21세기의 생태학은 중세의 신학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의 근간에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의 핵심이 뭐가요? 현재 학자들 사이에서 유추된 결론에 의하면 오직 두 가지, 종의 다양성과 멸종입니다. 적응방산, 즉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법인데,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그 통로가 차단되면 쇠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다섯 종 이상의 생물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관계망 속에서 외적 힘에 의해 한 종이 사라진다면 그 나머지 종들 또한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구 전체를 마치 자기들의 피부인 양 문명의 온갖 것들로 피복을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역시 매일 4만 종 이상의 생물을 이용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마이스터 구

김영래

사실만으로도 분명해지는 것은, 오늘날 이처럼 급격하게 진행되는 멸종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해낸 결과물이자, 결국은 우리 자신의 심장을 향해 겨누어진 화살이라는 것이지요.

멸종 3부작의 첫 번째 소설 『오아후오오』는 멸종된 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0여 년 전에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된 새와, 그 새를 추적하는 조류학자의 이야기가 뉴기니 섬의 강과 열대림을 배경으로 펼쳐지지요.

두 번째 소설 『신의 괴물』은 한반도에서 사라진 백두산호랑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소설에 등장하는 멸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또 하나, 독자들에게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문학의 시대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신기루나 열구름처럼 지상을 떠돌던 서사시와 음유시인들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학은 정처 없고 정체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잠깐 우리의 입을 빌어 허공에 울려 퍼진 노래 같은 것. 그 연기들, 온기를 지닌 편편 구름들이 모래사막의 바위 한 켠에서 먼지로 풍화되어 쌓인 그런 암각화의 흔적 같은 것. 그것이 문학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에서 많은 것을 기대해선 안 됩니다. 노래의, 이야기의, 의미의 전달자로서 만족해야 하지요. 때로는 자기만의 어떤 흔적을 덧붙여 아름다움을 증폭시키면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포부이자 야심이 아닐까요? 문학은 부귀영달의 수단도, 권력의 결과물도, 지식의 꽃도, 황금분위 사회에 바치는 장식품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덧없고도 헛헛한 세계에 그림자처럼 머물며 스쳐가는 자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답 오 은 희

파이프 하나에 음 하나.

온몸을 진동시켜 오직 하나의 음에,
절대음 하나에 복무하는 은빛 관들.
바보 같지 않아요, 문득 그가 물었다.
이토록 힘들여 만든 나무통과 쇠관들이
제각각 한 음밖에 내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완전한 음에 도달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것.
음의 성채, 음악의 궁전이 세워지기 위해선
무려 삼천 개의 파이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어쩌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의 악기에 매달려 산 지 이십여 년.
나이 삼십이 다 되어
그것도 먼 이역에서 처음 마주친 파이프오르간.
그 자체가 천궁天宮이었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설계하고 축조한. 그는

빛의 소리, 구름과 바람의 음악을 듣는다.
구름을 깨치고 광야 위로 내리꽂히는 빛기둥들을 본다.
섬광이 도리깨질하는 숲의 향기를 맡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음으로 나타내고 싶었다.
신의 식탁에 오를 향연의 음식처럼.

프랑크푸르트, 헬무터 발하가 봉직했던
평화교회 인근, 잘라놓은 원목들이 켜켜이 쌓인 작업장.
이제 시작이에요. 아득한 눈길, 희끗희끗한 턱수염,
수리공의 복장. 마이스터가 되었다는 건
이제 비로소 오르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뜻하죠.
내 삶이 온몸을 떨며 하나의 음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절대음을 낼 수 있게 되리라는 것.
아직은 꿈과 현실의 중간이지요.

* 헬무터 발하: 라이프치히 출신의 맹인 오르간 연주자.



가장 좋은 것, 또는 가장 나쁜 것

김영래

가장 나쁜 것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고 믿는 순간까지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 중에서
무엇을 먼저 기다려야 할까?
해 저무는 누옥의 문설주에 기대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달을,
그믐밤의 빛나는 별을.

아니, 어찌면
가장 좋은 것은 이미 나에게 왔는지도 모른다.
나에게 아직 희망과 슬픔이 있고
저 파란 하늘을 밀어붙이는
대지의 꿈틀거리는 뿌리를 내가 느낄 수 있으므로.
이처럼 좋은 것이 내 안에 또 내 밖에 있으니
내가 갖지 못한 가장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라.
그러므로 어찌면

가장 나쁜 것도 이미 나에게 왔는지도 모른다.
수천 갈래의 향방을 가리키는 별들이
그 작열하는 우주의 아등夜燈으로도
발 앞의 웅덩이 하나 비취줄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아는
나는
여명과 함께 읊트는 그믐달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으므로.

동터오는 누옥의 문설주에 기대어
아직 오지 않은 가장 나쁜 것을 두려워하지도,
아직 오지 않은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지도 않게 되었으므로.

약력

김영래

1963년 부산 출생. 1997년 <동서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였으며 2000년 장편소설 『숲의 왕』으로 제5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씨앗』 『떠나기 좋은 시간이야』 『페르귄트』 『오아후오오』 『신의 괴물』이 있으며, 중편소설집 『푸른 수염의 성』을 출간했다. 시집으로는 『하늘이 담긴 손』 『두 별 사이에서 노래함』 『사순절』이 있으며, 나무와 숲에 관한 신화 에세이 『편도나무야, 나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해다오』, 알베르 카뮈 탄생 백 주년을 기념하는 문집 『알베르 카뮈-태양과 청춘의 찬가』를 펴냈다. 제9회 군포문학상을 수상했다.

대담 오은희



무대 위의 삶, 꿈을 이루다

여섯 살짜리 아이의 첫무대 멘트 '아! 춥고 떨려'

2017년 군포예총에서 주관하는 군포예술상의 주인공은 성악가 이명자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군포음악협회 지부장으로써 군포의 예술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충남 세한대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던 이명자는 굵고 단아한 목소리가 인상적이다. 음악에의 열정과 음악교육자로서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녀를 만나 우선 군포예술상을 수상한 소감을 물었다.

“일단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늘 가족 같았던 군포예총의 예술인들께서 주시는 상이라 그 감회가 더욱 컸습니다. 수상의 기쁨을 늘 함께 했던 군포음악협회 회원들, 그리고 군포의 문화예술인 모든 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명자는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음악협회가 주관하는 수리음악콩쿨과 수리동요제를 명실공히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로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공을 들여 군포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음악 인재발굴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색동옷 입고 무대에 서다

그녀가 성악가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어린 시절 예견된 것일지도 모른다. 인천 부평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창틀에 올라서서 연신 노래를 흥얼거리던 귀여운 꼬마였다. 크리스마스 날 예쁜 색동옷을 차려입고 시골교회당 성탄축하 첫무대에 서서 한 말이 “아! 춥고 떨려!!” 였다고 한다.

여섯 살 꼬마가 수줍어하거나 조금의 쭈뼛거리도 없이 청중을 향해 그런 멘트를 날리다니...

그 후 큰오빠 친구들은 어린 이명자를 만나면 “아! 춥고 떨려.”라고 놀렸다. 무대는 늘 설레고 긴장되는 곳인데 어린 아이가 첫 무대의 인사말을 떨린다고 한 것은 무대에서 보낼 많은 시간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녀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잘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 대표로 나가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독창을 해 칭찬을 받았다.

인터뷰 | II.군포예술상 수상자-성악가 이명자

성악가로의 길

이명자는 중학교에 올라가서 음악시간에 남다른 노래솜씨로 두각을 나타냈다. 매 시간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부모님께 물려받은 고운 목소리에 감사하고 있었지만 정작 음악을 공부해서 성악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담임이자 영어담당이었던 이복수 선생님께서 콘코네와 코르위봉겐 등의 입문서를 주면서 성악공부를 해보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자매학교와의 교류 때 전교생 앞에서 노래 부를 기회를 만들어 주며 재능을 키워주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자신의 앞날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학년이 올라가 선생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인천여고 2학년 때 교문 앞을 지나가시던 이복수 선생님을 다시 만났다.

선생님의 “너는 꼭 음악공부를 해서 성악가가 돼야 한다. 재능이 있으니 꼭 해 보렴.” 라는 격려에 힘입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 본격적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인천에서 서울로 오르내리며 열심히 연습을 한 결과 경희대 성악과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수원과 인천시립합창단 수석단원으로 활동하며 성악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2009년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열린 독창회에는 천여 명이 넘는 청중이 참석하여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단아한 모습에 매료되었다. 세 번씩이나 커튼콜을 받은 소프라노 이명자는 특유의 미소로 답하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천상의 음률로 노래하여 많은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신앙생활과 음악인으로서의 삶

성악가이자 음악교육자인 이명자는 지금도 일요일이면 교회성가대 지휘자로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펼치고 있다. 그녀의 삶을 생각할 때 교회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큰오빠가 그녀를 업고 교회에 갔고 그 곳 무대에서 끼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 성장시키고 믿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곳은 인천 계산교회이다. 그곳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서 복음을 익히고 배웠을 뿐 아니라 어른 성가대에 끼여 6학년 때부터 찬양대 솔로로 데스칸트 파트를 노래했다. 경희대 음대에 입학해서도 계속 소년부 찬양대 지휘와 중고등부 지휘를 맡아 주어진 달란트로 임무를 다했다. 결혼 후 계산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날 계산교회 수요찬양대 지휘를 맡은 제자 겸 동생 철희와 특송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특송하는 날, 딸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과 그녀를 유독 아끼는 큰오빠가 오셨다. 대학시절 1부 예배찬양대 반주를 맡은 명희의 피아노에 맞춰 혼신의 힘을 다해 특송을 했다. 그 때 선교사 재파송식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어떤 키가 크고 흰칠한 남자가 “선생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자세히 보니 낮은 익은데... 그는 이명자가 계산교회에서 중고등부

지휘를 했을 때의 제자였다. 그 날의 설교자인 이용성 선교사, 제자가 멋지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주일이면 산본교회에서 권사로, 제1성가대 지휘자로서 신앙생활과 음악가의 생활을 잘 해 나가고 있다.

군포음악협회 지부장으로서의 활동

23회째를 맞이한 수리음악콩쿠르는 성악과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도들의 꿈의 무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참여하는 큰 대회이다.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요강을 게재해야 할 정도로 글로벌한 규모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지부장으로 재임했을 때의 성악가 이명자의 공로가 있다. 음악은 어느 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공들여 갈고 닦아야 하는 예술 활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리음악콩쿠르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으며 음악가로서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음악인재 등용문인 셈이다. 대회의 총괄직임을 맡은 이명자 성악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함께 23회째를 맞이한 수리동요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점 사라져 가는 우리 동요의 명맥을 이어주고자 하는 대회취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명자 지부장은 초등학생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지던 것을 유치부 아이들도 자신들의 기량을 뽐내며 친구들과의



협동심을 알게 해주자는 의미로 범위를 확대해 개최하였다.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음정과 박자를 고르며 함께 노래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녀의 여섯 살 때 무대 인사를 떠올리게 해주었다. 이외에도 공연장이 아닌 군포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청소년들에게 클래식과 친숙하게 해주자는 뜻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문화활동-교과서 음악여행’, 군포시의 합창단과 인근 도시의 합창단이 함께 참여하는 ‘수리합창제’, ‘청소년 교향악 축제’ 등 여러 활동을 펼쳤다. 또 연극, 국악, 무용협회 등 다른 공연지부와의 콜라보 무대는 다원예술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만족도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녀가 지부장으로 재임시 특히 기억에 남는 공연은 음악협회 정기연주회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에서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대표적인 김유정의「봄봄」과 현진건의「운수 좋은날」을 바탕으로 연극협회와 콜라보 공연을 펼친 것이다. 뮤지컬 형식으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담아 펼친 공연은 많은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그녀는 음악협회지부장으로서 경기음악제를 두 번씩이나 유치했으며 기전음악제를 군포에서 개최하여 음악협회 장식기 고문의 작곡발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같은 음악가의 길을 가는 딸들에게

엄마의 노래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나 보다. 성악가 이명자의 장녀 조은비양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오페라 연출공부를 하고 있고 둘째 조혜비양도 성악을 전공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시립합창단 단원생활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면 큰 딸 은비가 지휘봉을 들고 혜비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딸들에게 동요를 가르치는 시간이 행복했다. 열심히 레슨 받고 준비해서 음악가의 길을 가는 딸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공부를 해서 본인과는 다른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국립오페라단에서 인턴 생활을 한 후 유학을 간 큰딸에게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 감수해야 할 것들도 많고 늘 수면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발놀림이 있어야 한다.”

성악가 이명자는 잘 알고 있다. 예술가로 살아가는 길이 그리 쉽지 않음을. 이 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챙겨줘야 할 일도 많고 너무 잘 알아서 지켜보기 힘든 면도 있다. 하지만 두 딸이 무대에서 촉망 받는 오페라 감독으로, 또 성악가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크다.

이명자의 일상, ‘여전히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이다’

그녀는 2017년에 군포음악협회 지부장의 소임을 내려놓고 다시 예술가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주일이면 성가대 지휘자로, 평일에는 음악교육자로서 제자들을 지도하고 재능을 나누고 봉사하는 평화롭고 의미 있는 생활을





보내는 중이다. 한편, 성악가로서 고운 목소리를 유지하여 개인 독창회를 다시 한 번 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노래하는 사람에게 굵고 힘 있는 목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명자 성악가가 단장으로 있는 조이플 싱어즈는 경희대 음악대학 동기들로 구성된 여성 솔리스트 앙상블이다. 여섯 명의 성악가와 한 명의 피아니스트가 참여하고 있다. 그녀들은 저마다의 푸른 꿈을 노래하던 학창시절을 지나 이태리, 미국,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음악을 공부한 뒤 각자의 삶 속에서 빛나는 솔리스트로 살다가 삼십 년 만에 다시 만나 뭉친 것이다. 교수, 음악치료사, 오케스트라 단원, 노래지도 강사, 음악교사, 미술관 도슨트, 입양홍보교육 강사 등 서로의 연륜과 개성을 모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고 크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삶의 위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들려준다. 그녀들은 아이들도 다 컸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라는 취지 아래 모였고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하루도 노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엘림요양원 연주부터 아산병원 정오음악회 연주, 관악고등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각자의 목소리에 영혼을 담아 멋진 화음을 만들어 내는 조이플 싱어즈 활동은 일상에서 노래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요즘은 성악을 취미로 하는 동호인들이 많아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아노나 플룻 등 악기를 배우는 데 그쳤지만 소리가 좋아서 노래하고 무대에 나가 발표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이명자는 성악이 대중화 되는 것에 반가움을 표했다. 클래식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장르로 환영받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다. 매체를 통해서 보여준 다양한 클래식 공연과 팬텀 싱어

등의 프로그램은 음악이 대중을 위무하고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클래식 성악을 하고 싶은 것이 그녀의 바람이기도 하다.

끝으로 군포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시하는 요청에 이명자 성악가는 말한다. 군포는 작은 도시, 큰 시민을 표방하고 있는 그야말로 작고 아담한 도시지만 문화예술 향유욕구는 굉장히 높은 곳이다.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고 군포의 예술인들이 창작해 낼 수 있는 콘텐츠가 풍부한데도 잘 모르는 정책자들은 외부의 것이 좋다고 무조건 들어오는 우를 범한다. 그러다보면 지역의 정체성은 흐릿해질 것이고 군포만의 독특한 전통도 구축되기 힘들다. 지역문화예술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멋진 예술작품을 창조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포예총의 예술가들이다. 그들이 멋지게 도약해 군포예술의 품격을 높여주기를 바란다며 끝을 맺었다

대담 및 글 오은희

소프라노 이명자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음악학사)
 이태리 발렌티니 음악학교 수료
 한세대 일반대학원 음악예술경영 졸업(석사)
 난파음악제 우수상 입상, 경기음악상 수상
 새한대학교 실용음악학부 출강(보컬전공지도)
 산본교회 살림찬양대 지휘자
 (사)인천 뉴 필하모닉&코랄 콰이어 솔리스트
 조이플싱어즈 단장, 군포예총부회장 역임
 군포음악협회 지부장 역임, 수리음악콩쿠르 운영위원장 역임

군포 문화예술의 기억전달자, 이숙진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국장님, 우리 국장님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뒤쪽 출연자대기실 현관으로 들어가 2층 예총사무실에 가면 늘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녀가 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물으면 하던 일 멈추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군포예총 이숙진 사무국장.

그녀가 군포예총과 인연을 맺은 지 올해로 12년째. 삼십대의 끝자락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군포문화예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곽상원 회장, 강신용 회장 그리고 현재 재임하고 있는 강희진 회장까지 그녀와 함께 군포예총을 이끌어 갔던 분들이다. 회장의 임기가 끝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굳건하게 예총의 살림을 맡아하고 있는 이숙진 국장은 군포예술인들에게는 산소 같은 사람이다. 지원금 신청서부터 정산서 작성, 세금관계며 출연자 섭외에 이르기까지 일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그녀에게 묻고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일은 진행되고 답답했던 가슴도 땀 뚫리기 때문이다. 그녀는 군포예총 소속 예술인들의 면면을 알고 있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공감하며 소통해 왔다.

예총의 살림살이는 만만치 않다. 국악, 문인,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연예예술인, 사진협회 8개 지부의 사업과 단위사업을 비롯하여 예총 차원에서 하는 크고 굵직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군포시의 지원을 받아 하는 대규모 문화예술행사도 기획하고, 진행 참여해 왔다. 그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군포시 축제사무국요원으로 활동하며 오늘날 군포의 철쭉대축제가 되기까지의 초석을 다졌다. 2007년과 2008년 군포예총에서 개최한 군포태음제부터 2009년 수리수리마법축제, 2010년부터 이어져 온 군포철쭉축제 등.

이 세월 속에서 이숙진 국장의 역할은 컸다. 축제음악회를 기획하며 홍보, 초청가수 섭외, 무대연출 등 여러 일들을 조율했다.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체험부스를 만들고 자원봉사, 안전대책을 세우는 등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 단체와 주민센터, 동아리 등과의 협업체계도 잘 이끌어 낸다. 사람들에게 이숙진 국장은 못하는 게 없다, 늘 평가를 받지만 정작 본인은 화려한 무대와 영광, 찬탄 뒤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어느 해인가는 시민체육광장에서 축제 준비를 하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수리산이 바라다 보이는 남천병원의 한 병실에 누워 있는 그녀에게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축제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사실, 좀 더 일찍 받았어야 했는데 공로상 수상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공로상은 해당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그 분야에 큰 영향을 준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니 그 수상자가 이숙진 국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말에도 어김없이 현장에서

문화예술도시 군포는 다양각색의 예술인이 모여 사는 곳이다. 군포문화예술회관의 수리홀이나 철쭉홀 같은 훌륭한 시설의 무대도 있지만 모든 예술인들이 늘 그곳에 설 수는 없다. 군포예총에서 하는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는 예술인들에게는 설 무대를 마련해주는 동시에 관객들은 동네 가까이에서 열리는 음악, 무용, 국악, 마술 등의 공연예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반응이 매우 좋았다. 초창기에는 몇 번 되지 않았지만 해가 지날수록 횟수도 증가하고 공연의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주관단체인 군포예총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는데 그 중심에 군포예총 회장을 비롯하여 이숙진 국장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공연의 기획과 출연자 섭외, 홍보 및 정산까지 나날이 진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한 데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 나와 뒤에서 연출팀을 살피고 음향과 조명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그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출연진과 스태프들의 음료와 간식을 챙겨주고 우천에 대비해 비옷까지 준비하는 배려심과 철저함이 여러 해 일을 거듭할수록 쌓이는 노하우였던 것이다.

이런 그녀의 스타일은 대규모 행사인 군포철쭉축제나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등에도 어김없이 그 진가를 발휘했다. 군포시청 앞 도로에서 교통통제를 해 가며 진행했던 축제행사 때도 사전에 여러 기관, 단체들과 빈틈없는 협력체계를 이루어 민원대상이 되지 않게 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날 교통질서 자원봉사를 해주신 분들에게도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고 보은팩을 드리는 등 세세하게 챙겨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는 그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그녀가 가장 염두해 두었던 것은 공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다양하고 새로운 내용을 시도해 시민들이 아무 곳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니라 우리 군포의 정체성을 잘 살리고 전통을 만들 수 있는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군포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함께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또한 방학과 휴가기간인 여름철에 ‘한여름 쿨페스티벌’, ‘한여름밤 영화산책’ 및 매주 일요일 상설로 진행되는 ‘일요예술무대’ 등도 그녀의 손을 거쳐 새로운 여름 가족문화를 만들어냈다.

동아리팀 공연문화를 활성화

요즘은 군포에서는 생활문화동호회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군포문화재단이 출범한 후 군포생동감 축제와 아마추어밴드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와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성화는 군포예총의 동아리팀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숙진 사무국장은 아마추어 예술인, 동아리단체 등 전문 무대에 서기 힘든 자생적 예술 단체의 활동공간을 마련해주고,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등 연평균 30회, 총 150회 공연을 통하여 지역의 동아리 회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게 되었다. 지금도 군포예총에서 주관하고 있는 동아리경진대회는 아마추어 동아리팀들의 등용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입상한 각 동아리팀들은 해마다 4월에 열리는 군포철쭉축제에서 철쭉만발콘서트와 거리공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동아리 경진대회는 이숙진 사무국장이 지역의 시민들과 소통하는 장이며 군포예총 소속 예술인들과 연결하여 우리동네 프로젝트 등의

협력프로그램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다. 이런 일련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구성원들과의 친밀감과 신뢰감 구축이다. 이숙진 국장의 예의 화합을 이루는 품성이 잘 발현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숙진 사무국장은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족분과위원으로 태교음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군포사랑맘 태교음악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군포예총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족여성분과에서 함께 주관한 행사였다. 엄마가 들려주는 노랫소리, 음악소리(합창 및 연주), 가족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등 엄마와 아기가 함께 하는 행복나들이를 통해 임신부들과 가족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군포문화예술인 워크숍 주관

군포예총 이숙진 국장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해마다 8개 각 지부의 공연과 행사가 마무리 될 즈음인 11월에 예총 회원들의 워크숍을 준비하는 일이다. 워크숍 참석자 챙기기부터 장소 정하기, 숙박, 음식, 준비물 등을 체크해가며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은 세심한 관심과 수차례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 어려운 일을 그녀는 매우 잘 해 내고 있다. 각 지부의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돕는다고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그녀 혼자 신속하고 완벽하게 똑딱똑딱 진행한다. 그만큼 예총 식구들과 교류한 시간이 많이 쌓여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총의 워크숍은 늘 유쾌하고 배부르다. 함께 해서 즐거운 이들과 하루나 이틀을 지내고 나면 아주 가까운 식구가 되는 것 같다. 참석했던 몇 해의 워크숍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에 매우 만족하며 그녀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숙진 국장의 가장 큰 장점은 그녀가 어느 특정 예술 장르에 속해 있지 않기에 각 지부에 골고루 마음을 쓴다는 것이다. 예산이나 무대 출연 횟수 등을 정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게 분배하고 예총 전체의 행정과 재정도 통합적인 시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포문화예술의 기억전달자로

이숙진 국장이 다년간 군포예총에서 보여준 역량은 군포문화예술의 내실에 큰 도움을 주었다.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뿐만 아니라 각 예술인들과의 화합과 소통, 군포시 관내 각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 동아리 회원들 사이에서의 원활한 같은 역할 등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개인에 머물러 있다 사장될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래야 군포문화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다양한 콘텐츠가 축적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군포에서 25년을 살아온 군포지킴이다. 또한 군포의 문화예술의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큰 이숙진 군포예총 사무국장에게 바라는 것은 군포문화예술의 기억전달자로서의 역할이다.

글 오은희

